

1) 의료요원의 현상황은 의사 33명, 치과의사 4명, 한의사 9명, 약사 18명, 간호원 52명, 간호보조원 150명, 기술요원 27명, 행정요원 200명 및 개업의료업자 180명으로서 유자격 보건요원의 보충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.

2) 각종 전염병발생은 1968년에 장티프스 247명, 디프테리아 12명 및 뇌염 55명이 발생했고 1969년도는 콜레라 12명, 장티프스 174명, 디프테리아 17명, 뇌염 4명이고, 또 1970년도는 콜레라 228명, 장티프스 116명, 디프테리아 9명이고, 뇌염은 발생수가 없었다.

3) 예방약의 배정량은 1968년에 비하여 매년 증가되었다.

4) 접종능력의 강화를 위한 전담접종반 편성 및 예방약 저장시설 보완이 시급히 요청 되었다.

영아 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관한 연구 — 경기도 인천시내 거주 영아를 중심으로 —

김 경 속

경기도 인천시 거주자로 최종아의 연령이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인 443명을 무작위추출법(Random sampling)으로 선택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영아영양법 및 이유실시에 대한 실천상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영양법과 이유실시상의 경향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간호사로서 어머니에게 실시하는 영아보건지도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그 조사성적은 다음과 같다.

1. 영아기 영양법

(1) 초생아기 영양법(생후 첫 3일 동안의 영양)

가정분만 108예 중에서 젖을 먹였다는 부인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이하게 녹용을 먹인 부인도 2명 있었다.

(2) 영아기 영양법

전 대상아의 54.5% (241명)는 모유영양법, 33.1% (147명)는 혼합영양법, 12.4% (55명)는 인공영양법에 의해 양육되었다. 모유영양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부인의 연령은 35~39세(61.7%), 인공영양법은 40~44세(18.7%)와 20~24세(17.6%)에서 많았으며 혼합영양은 전 연령군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.

(3) 수유의 간격(Feeding interval)

이 질문에선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였다고 한 부인이 263명(59.4%)으로 가장 많았고, 141명(31.8%)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먹였으며, 29명(6.5%)은 시계처럼 엄격한 규칙에 의해 먹였음이 관찰되었다. 영양별로는 혼합영양과 모

유영양에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인 부인이 상당히 많았으며, 인공양양에선 40명(72.7%)의 부인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먹였으나 엄격한 시간 간격으로 먹인 경우도 11명(20%)이나 되었다.

(4) 인공영양법 선택의 이유는 젖부족(49.1%), 어머니의 질환 및 건강상 이유(21.8%), 어머니의 직업(18.2%) 등으로서 대부분이 어머니편의 이유였다.

(5) 조유영양중에서 대부분의 부인이 조유처방을 엄격히 시행하였다. 조유처방의 지식취득경로는 책, 팸프렛 등의 인쇄물을 통한 경우가 58.5%로 가장 많았다.

(6) 비타민 혹은 광물질 사용경험

대개의 부인이 그들의 영아에게 비타민이나 광물질 사용경험이 있었으며(71.8%) 그 종류로는 비오비타 등의 종합비타민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원기소, 에비오제 등이었다.

2. 수유와 이유에 대한 관찰상황

조사당시 이유한 부인은 73.8% (327명), 수유중인 부인은 13.8%, 전혀 모유를 사용하지 않은 부인은 12.4% 이었다.

(1) 수유기간

이유된 327명의 아기들의 수유기간은 13~18개월과 11~12개월이 각각 28.5%, 26.6%로서 가장 많았고, 19개월 이상 계속 수유한 경우도 16.5%나 되었다. 평균수유기간은 전체가 13.7개월이며, 모유영양(13.2개월)이 혼합영양(8.7개월)보다 훨씬 길었다.

(2) 이유실천의 이유로는 어머니자신의 의견 즉 아기에게 이유를 실시해도 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됨으로가 37.7%로 가장 많았으나 대개는 어머니편의 이유 즉 어머니의 직업(8.9%), 젖부족(17.5%), 임신(14.4%), 어머니의 병환때문에 이유를 실천함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이유실시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본다.

(3) 이유에 대한 부인의 태도

이유를 실시한 부인(315명)중의 76.5%는 점차적으로, 23.5%는 갑자기 젖을 떼었음이 관찰되었고, 점차적으로 젖을 떼는 경우 이유개시 연령은 생후 7~8개월이 22.1%로 가장 많았으며 생후 12개월이전 개시가 7%, 생후 12개월이후 개시가 23.9%로서 이유개시연령이 지정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.

(4) 이유시 관습

이유를 시도한 방법으로는 모유영양과 혼합영양에서 59.0%의 부인이 젖꼭지에 칠하여 아이가 젖을 기피하는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머큐롬(26.6%), 쓴 약이 다용되었다.

(5) 이유식이 늦은 이유

이유식 실시가 늦게 되는 이유는 346명의 부인 중 59%가 아기의 건강상 문제를 들었고, 기타의 이유(12%)를 분석한 결과 이유시 모아관계에 대한 정신보건지도가 요청되었다.